

- 주요 뉴스: 3월 FOMC 의사록 공개 예정, 5월 빅스텝(0.5%p 금리인상) 여부 가늠할 소지
 - 미국 뉴욕 연은 총재, 연준의 금리인상은 경제 여건을 반영할 필요
 -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(속보치), 사상 최고치. 통화정책 정상화 요구 증가 예상
 - 중국 정부, 미국 상장 자국 기업의 회계정보를 미국 당국과 공유할 방침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양호한 3월 고용지표, 주중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 등이 영향
 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하락[-9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경제전망 관련 시각 개선 등으로 상승세 지속
 유로 Stoxx600 지수는 주중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 기대 등으로 1.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등으로 매도 증가
 유로화가치는 0.6% 상승, 엔화는 0.4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불안 완화 등이 원인
 독일은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3bp 하락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3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4/1일	3/25일	전주말대비			4/1일	3/25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545.9	4,543.1	0.06%	국채 금리 10y	미국	2.38%	2.47%	-9bp
	유럽	458.34	453.55	1.06%		독일	0.56%	0.59%	-3bp
	중국	3,282.7	3,212.2	2.19%	CDS 5y	한국	29bp	29bp	0bp
	일본	27,666	28,150	-1.72%		중국	62bp	62bp	-0bp
	한국	2,739.9	2,730.0	0.36%	위험 지표	EMBI+	370	536	-166bp
환율	달러지수	98.63	98.79	-0.16%		VIX	19.63	20.81	-5.67%
	유로화	1.1043	1.0983	0.55%		WTI유	99.27	113.90	-12.84%
	엔화	122.52	122.05	-0.38%	원자재	구리	468.9	468.6	0.05%
	위안화	6.3629	6.3662	0.05%		금	1,925.7	1,958.3	-1.67%
	원화	1,215.5	1,218.8	0.27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3월 FOMC 의사록 공개 예정, 5월 빅스텝(0.5%p 금리인상) 여부 가늠할 소지

- 이번 주(현지시각 4/6일)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. 정책위원들이 시장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경계감과 이에 대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면 0.5%p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
- 양적긴축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도 가능할 전망. 가장 최근에 시행됐던 양적긴축은 매월 500억달러(국채 300억달러, 모기지담보부증권 200억달러) 규모로 1년 동안 시행. 전문가들은 이보다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
- 지난 주 발표된 3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과 2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는 각각 높은 임금상승률 및 실업률 하락, 고물가 압력 지속 등을 나타냈는데, 이는 연준의 0.5%p 금리인상을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
- 다만 일부에서는 3월 FOMC 의사록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. 최근 고용지표가 양호했고 고물가도 지속되고 있기에, 이에 따른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움직임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뉴욕 연은 총재, 연준의 금리인상은 경제 여건을 반영할 필요

- 윌리엄스 총재는 중립금리 도달을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, 먼저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. 그의 이번 발언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좀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
-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고물가 지속과 수급이 팽팽한(tight) 노동시장 등 5월 FOMC에서의 0.5%p 금리인상을 위한 토대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

■ ECB 슈나벨 이사, 3/4분기 자산매입 종료 이후 금리인상을 예상

-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경제지표 등으로 확인된다면 순자산매입은 3/4분기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
-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ECB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. 네덜란드 중앙은행 뉘 총재는 3/4분기 자산매입의 신속한 종료를 주장

■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(속보치), 사상 최고치. 통화정책 정상화 요구 증가 전망

- 해당 물가는 전년동월비 7.5% 올라 전월(5.9%) 및 예상치(6.6%)를 상회했으며, 이번 결과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
- BNP 파리의바의 Spyros Andreopoulos는 ECB가 금년 내 통화정책 완화 중단 및 마이너스 금리 탈출이 필요하다고 언급.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있기에 이러한 시도는 금년 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■ EU,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

- 회원국들은 최근 러시아 선박의 EU 항구 입항 금지, 추가적인 수출 제재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등을 제안. 이들 가운데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

■ 중국 3월 차이신 제조업 PMI, 2년 만에 최저.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

- 해당 지수는 48.1을 나타내 확장과 위축의 기준인 50을 하회. 세부 항목 가운데 신규 수출수주가 부진했고, 투입비용이 큰 폭 증가. 차이신 인사이트 그룹의 Wang Zhe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

■ 중국 정부, 미국 상장 자국 기업의 회계정보를 미국 당국과 공유할 방침

- 이러한 규제완화는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들이 상장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. 이르면 금년 중순 미국 당국과의 감사 내용 공유가 가능

■ 국제에너지기구(IEA), 비축유의 추가 방출을 결정. 유가 안정이 목적

- 긴급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에 협력하겠다고 발표. 이번 비축유 방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유시장 불안 해소가 목적. 한편 OPEC의 3월 산유량은 증가(일일 9만배럴)했으나 당초 합의 수준(일일 25.3만배럴)에는 미달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4/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월 건설지출(전월비): 0.5%, 1월(1.6%), 예상치(1.0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4 현지시각 기준)

-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강연, 미국 2월 제조업수주, 유로존 4월 Sentix 투자신뢰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금리인상, 적정 중립금리의 정확한 파악이 주요 과제 - 블룸버그

(Fed Seeking to Find Where 'Phantom Menace' Neutral Rate Sits)

- 연준은 지속적인 금리인상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합의된 중립금리 수준은 부재. 중립금리 추정에 오류가 있으면 경기둔화 혹은 경기과열 등을 초래할 우려. 그러나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중립금리 추정에 어려움이 존재
- 연준의 통화긴축에도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므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추가 긴축이 필요. 다만 완화적 금융 여건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통화긴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우며, 이는 중립금리 판단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

■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, 성장 둔화 등으로 적극 추진에 어려움 직면 - WSJ

(Xi Jinping's 'Common Prosperity' Was Everywhere, but China Backed Off)

- 작년 중국 정부는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동부유를 표명하며, 기술 및 부동산 회사 규제 등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. 하지만 금년 시진핑 3선 도전을 앞두고, 성장 둔화 극복을 위해 공동부유 정책은 일부 철회되는 등 추진력이 상당히 약화
- 경제학자들은 조세 개혁 등 공동부유에 필요한 잠재적 비용을 충당할 만한 변화 없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. 이는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류층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당국의 공동부유 정책 실행에 난항이 예상

■ ECB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종료 가능성, 유로화 강세 유도할 소지 - 블룸버그

(Euro Bulls Call End to Currency Rout After ECB's 'Regime Shift')

■ 미국의 억만장자세, 세금 코드 폐지 등 포괄적 세제 개혁이 요구 - Financial Times

(Joe Biden's ill-considered billionaire tax)

■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, 엔화 약세 등으로 장기간 지속은 어려울 가능성 - 블룸버그

(How Japan Took on the Bond Vigilantes and Won — For Now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